true Friend 한국투자 ^{증권}

KT(030200)

NDR 후기: 배당메리트, 매력적인 valuation

매수(유지)

목표주가: 38,700원(유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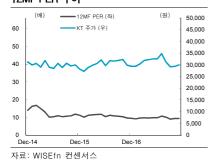
Stock Data

| KOSPI(11/23) | 2,537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주가(11/23) | 29,950 |
| 시기총액(십억원) | 7,820 |
| 발행주식수(백만) | 261 |
| 52주 최고/최저가(원) | 35,400/28,700 |
| 일평균거래대금(6개월, 백만원) | 21,531 |
| 유동주식비율/외국인지분율(%) | 82.2/49.0 |
| 주요주주(%) 국민연금 | 11.2 |

주기상승률

| | 1개월 | 6개월 | 12개월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절대주가(%) | 0.8 | (4.9) | (2.8) |
| 상대주가(%p) | (1.0) | (14.7) | (30.4) |

12MF PER 추이



양종인 jiyang@truefriend.com

minyoung@truefriend.com

해외 투자가 대상 NDR 실시, 배당 · valuation · 부동산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

- 우리는 KT와 함께 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NDR 실시
- 투자가는 정부의 요금규제, 단말기 완전 자급제, IPTV 성장성 및 수익성, 부동산 개발, 5G 주파수 경매와 설비투자, 배당 등에 관심이 많았음
- 투자가는 요금규제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valuation, 배당 증대, 우월한 유무선 네트워 크, 부동산 가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, 규제 추이에 따라 매수시점 모색

보편 요금제는 실행 어려울 것, 완전 지급제는 긍정적

- 요금규제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음. 정부는 9월 25% 약정할인 실행에 이어 18년 취 약계층(저소득층, 어르신) 요금감면 추진
- 보편요금제(2만원, 1GB 제공)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반대 의견이 많아 실행이 어려울 것
-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시 유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마케팅비용 절감

IPTV. 초고속인터넷이 성장 주도, 설비투자는 5G 불구 현 수준 유지

- 신규가입자 중 요금할인 가입자 비중은 3분기 45%에서 최근 60% 중반으로 상승했으나 요금제 상향으로 신규 요금할인 가입자 중 699 요금제 비중이 10%p 상승
- 부동산 가치는 장부가 3.4조원, 시가 7.8조원. 부동산 매출은 16년 2,970억원에서 17 년 4천억원 이상, 20년 7천억원 상회 추정(20년 부동산 가치는 9.4조원)
- 5G는 초기에 B2B에 주력하고 4G망을 함께 이용. 수요에 맞춘 점진적인 투자로 향후 3~4년간 설비투자는 현 수준 유지 가능
- 17년 무선통신 매출액은 2% 이상(16년 1.7%), 초고속인터넷은 5% 이상(4.3%), IPTV는 15% 이상(23 9%) 증가 목표 마케팅비용은 2 5조원 이하(16년 2 53조원) 집행 목표

배당 메리트, 매력적 valuatrion 부각

-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8,700원 유지, 12MF PER은 8,8배, PBR은 0.6배(부동산 시가 반영 시 0.4배), EV/EBITDA는 2.5배로 낮으며 배당수익률은 3.3%로 높음

| | 2015A | 2016A | 2017F | 2018F | 2019F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매출액(십억원) | 22,281 | 22,744 | 23,220 | 23,617 | 23,927 |
| 증가율(%) | (0.1) | 2.1 | 2.1 | 1.7 | 1.3 |
| 영업이익(십억원) | 1,293 | 1,440 | 1,523 | 1,600 | 1,693 |
| 순이익(십억원) | 631 | 798 | 853 | 953 | 1,038 |
| EPS(원) | 2,258 | 2,904 | 3,070 | 3,460 | 3,768 |
| 증가율(%) | NM | 28.6 | 5.7 | 12.7 | 8.9 |
| EBITDA(십억원) | 4,933 | 4,861 | 4,902 | 4,947 | 5,065 |
| PER(x) | 12.5 | 10.1 | 9.8 | 8.7 | 7.9 |
| EV/EBITDA(x) | 2.8 | 2.7 | 2.6 | 2.5 | 2.3 |
| PBR(x) | 0.6 | 0.6 | 0.6 | 0.6 | 0.6 |
| ROE(%) | 5.2 | 6.4 | 6.4 | 6.9 | 7.2 |
| DY(%) | 1.8 | 2.7 | 3.3 | 3.7 | 3.8 |

주: 순이익,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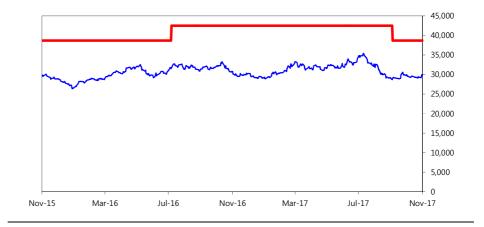
<표 1> 2017년 가이던스

| | 2016 | 2017F |
|----------------|--|---|
| 매출액 | 22.7조원 | 22조원 이상 |
| CAPEX (별도) | 2.36조원 | 2.4조원 이하 |
| 무선통신 서비스 매출 증가 | 1.7% | 2% 이상 |
| LTE 가입자 비중 | 85% | 87% |
| 유선전화 매출 감소액 | 2,596억원 | 2,000억원대 초반 |
| 초고속인터넷 매출 증가 | 4.3% | 5% 이상 |
| 기가인터넷 가입자 | 242만명 | 350만명 이상 |
| IPTV 매출 증가 | 23.9% | 15% 이상 |
| IPTV 순증 가입자 | 49만명 | 30만명 |
| 마케팅 비용 | 2.53조원 | 2.5조원 이하 |
| | 800원 | 1,000원 |
| | CAPEX (별도) 무선통신 서비스 매출 증가 LTE 가입자 비중 유선전화 매출 감소액 초고속인터넷 매출 증가 기가인터넷 가입자 IPTV 매출 증가 IPTV 순증 가입자 | 매출액 22.7조원 CAPEX (별도) 2.36조원 무선통신 서비스 매출 증가 1.7% LTE 가입자 비중 85% 유선전화 매출 감소액 2,596억원 초고속인터넷 매출 증가 4.3% 기가인터넷 가입자 242만명 IPTV 매출 증가 23.9% IPTV 순증 가입자 49만명 마케팅 비용 2.53조원 |

자료: KT, 한국투자증권

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

| | | | | 괴리율 | +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종목(코드번호) | 제시일자 | 투자의견 | 목표주가 | 평균주가 대비 | 최고(최저) 주가 대비 |
| KT(030200) | 2015.11.05 | 매수 | 38,700원 | -23.6 | -15.9 |
| | 2016.07.29 | 매수 | 42,500원 | -25.9 | -18.0 |
| | 2017.07.29 | 1년경과 | | -25.6 | -16.7 |
| | 2017.09.27 | 매수 | 38,700원 | - | _ |

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현재 KT 종목의 발행주식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KT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(주식워런트증권)를 발행 중이며,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(LP)입니다.

■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시장 지수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

- 매 수 : 시장 지수 대비 15%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
- 중 립 : 시장 지수 대비 -15~15%p의 주가 등락 예상
- 비중축소 : 시장 지수 대비 15%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
-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

■ 투자등급 비율 (2017.9.30 기준)

| 매수 | 중 립 | 비중축소(매도)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78.6% | 20.4% | 1.0% |

※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

■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

- 비중확대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이 가져갈 것을 권함
- 중 립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
- 비중축소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
-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.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